

‘당정대’에서 ‘대’ 빼라... “정부·대통령실은 한몸” 尹 의중 반영

‘당정대’→ ‘당정’ 용어 교통정리... 국힘·총리실 나란히 공지
“尹대통령, 대통령실이 정부 위 군림하는 모양새 안된다 생각”

“당정대가 아닌 당정 협의입니다.”
오는 6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실이 입을 모아 “회의 이름에 ‘당정대’라는 표현 대신 ‘당정’이라는 표현을 써 달라”는 공지를 했다.
당·정부·대통령실을 모두 가리키는 ‘당정대’라는 약칭에서 대통령실을 뜻하는 ‘대’를 빼 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이처럼 회의 명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을 구분하거나 나아가 대통령실이 정부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를 취해선 안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에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보도에서 ‘당정대’ 용어를 쓰는데, 올바른 용어는 ‘당정대’가 아닌 ‘당정’ 협의회이므로 용어 사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총리실도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변

주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을 소개하면서 ‘협조 요청’을 달아 “‘당정’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란다. (당정대X)”고 적었다.
6일 회의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면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권성동 원내대표·한기호 사무총장·성일중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 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진복 정부수석·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한다.
협의회 이름에서 ‘대’자를 빼기로 한 데에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곧 행정부 수반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자주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도 자주 드러냈다. 대통령실이 장관 위에 군림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뜻이 마치 대통령 뜻인 것처럼 왜곡되며 회의에서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을 가로막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대통령실 제공

라고 덧붙였다.
회의 명칭 관련 정부 규정을 살펴 보더라도 ‘당정 협의회’라는 용어가 맞다는 주장도 있다.
‘당정청 협의회’ 또는 ‘당정청 회의’라는 표현은 정부 성향을 불문하고 20여년 전인 2001년쯤부터 언론과 정부,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쓰였

만, 국무총리 훈령 제70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협의회는 ‘고위 당정협의회’라고 명시가 돼 있다.
회의 기본 참석자는 ▲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처·청 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 ▲ 여당의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로 돼 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기본 참석 대상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규정 내용이다.
다만 최근까지는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참석했을 때 회의 결과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왔고, 이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도 고 정명배로 참석하면서 ‘당정청’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돼 왔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대통령실을 마련하면서 ‘당정청’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게 되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진행한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회의 이름을 ‘당·정·대 협의회’라고 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세부 내용 협상으로 여야가 교착 상태에 있던 5월 28일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지도부, 대통령이 만나는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총재를 겸하던 지난 시대의 용어”라며 “대통령은 본인이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영수(領袖)는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를 뜻한다.

연합뉴스

우상호,尹 나토 회담에 “한쪽 앙심 사면 잘한 외교 아냐”

“김승희 지명 강행하면 정권 지지율 급락할것”
“박지현 출마 자격 없어 비대위 논의 해봐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결과와 관련해 “한 쪽에 환심을 사러다가 다른 한 쪽의 앙심을 사면 외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우리가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신냉전시대에 한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중국이 자극받는데 참고 있다. 중국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한 국가 인구가 500만~700만 명인데 어떻게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느냐. 중국 시장을 버리고 유럽으로 간다는 건 현명

하지 않다”며 “죽국의 오해를 풀기 위한 후속 노력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인사 문제에 실망했다”며 “최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구설수도 쉽게 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단 회에서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며 “조속히 결단하지 않고 김 후보자의 지명을 강행하면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경제·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다며 “물가가 올라서 위험한데 대통령이 한가해보이는 것은 문제 있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 총체적 위기대응체계를 짜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비상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오는 4일 오후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며 “의석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선거해도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다만 우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는 합의해야 한다”며 “의장을 뽑는다고 해서 모든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당 대표 권한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최고 위원이 거의 거수기 대접을 받았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상의할 수 있는 범주는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의 보완”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 위원장은 “당 대표 권한은 전혀 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결과와 관련해 “다른 한 쪽의 앙심을 사면 외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연합뉴스

들지 않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큰 권한 이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고위원 권한도 강화하지 않는다”며 “당 대표가 최고위원과 상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지 권한에 관한 것은 아니다. 공천, 인사권 등 대표 권한의 약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에 대

해서는 “아직 50대 50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계파 보스들이 나 나와서 하는 계파 대결보다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박 전 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어서 이 문제를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들을 꿈꾸게 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을 꿈꾸게 하는 즐거운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우리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에서 경험해 보세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미있는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아가 참여하는 활동,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 신고를 한 활동인지 꼭 확인하세요!



경기도 Youth Services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송죽동) 2층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TEL 031)232-9383~5 FAX 031)232-9388 홈페이지 www.gysc.or.kr

SNS www.facebook.com/kgysc
블로그 blog.naver.com/kgyvc

